

INTERIOR DESIGNER **Fance**



JULIE ROSIER
PRIVATE HOUSE RUE DU CHATEAU, PARIS

Julie Rosier **PRIVATE HOUSE**

듀플렉스 구조의 파리지앵의 아파트

파리가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인 이유는 파리에 살고 있는 스타일리쉬한 파리지앵 덕분이다. 파리지앵이 겉모습만 스타일리쉬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도 당연히 스타일리쉬하다.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Julie Rosier 가 파리지앵의 프라이빗 하우스 작업을 공개했다. 지난 1월 공사가 마무리 된 파리지앵의 아파트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미지를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했다.

Julie Rosier는 그 동안 다양한 주거 공간을 디자인해왔는데, 크리에이티브 넘치는 스타일과 깔끔하고 세련된 마감으로 파리지앵에게 인기를 얻어왔다. 이른바 듀플렉스라 불리는 계단 구조는 좁은 면적의 주거 공간을 활용하는 파리 주거형태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그녀는 이 구조를 잘 풀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작업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계단을 따라 오르내리며 주방과 거실을 이동해야 하는 파리의 일반적인 주거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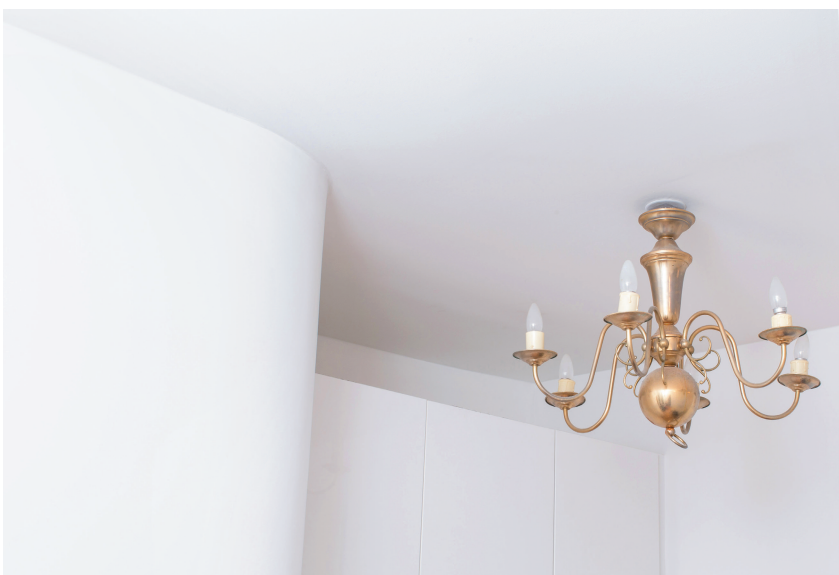


REALISATION AND CONSTRUCTION



*Parisian duplex
the routine of its
habitants*

좁은 공간을 세련되게
활용하는 방법



먼저 주방과 거실을 2층에 위치시키고, 침실과 욕실을 1층에 놓아 좀더 밝고 부드러운 공간이 뒤뜰과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주방은 계단 옆쪽에 박스 형태로 만들고 그래픽 패턴을 마감으로 활용해 모던함을 더했다. 패턴은 몬드리안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그레이와 옐로 컬러를 중심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게 교차되도록 만들었다.

주방 덕분에 전체 공간이 예술적인 분위기가 가득하게 바뀌는 데, 이러한 디자인은 침실과 거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모든 공간은 오픈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소재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 바닥은 하드우드를 사용하고, 나무에 페인트를 더해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이 가득하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



Equally comfortable in design, realisation and construction, Julie Rosier, registered architect, enjoys designing ideal spaces, customised to her clients' image. Among many projects, the redevelopment of a full Parisian duplex in the 14th district of Paris, gave Julie the opportunity to exercise her talent by upgrading and optimising the entire space.

Playing the card of creativity, Julie opted for a total reversal and completely turned the norm of the house interior upside down along with the routine of its habitants. The kitchen and living room have been relocated to the first floor and the bedroom and bathroom are now on the ground floor, providing more light, softened by its location towards the backyard.

The kitchen has been subverted into a box along the staircase, which has been graphically designed and inspired by Mondrian with a play on colours : grey and yellow which dress a space often under-used.

Appreciated and also recognised for her artistic touch and eye, the bedroom and the living room (a tribute to Camondo) – and by this claim the specificity and the transersity of the 2 disciplines :

architecture and design. All spaces and facilities are singular, identified and precise, as Open spaces, they give a feeling of fluidity, freedom and ownership of the space.

The materials chosen by Julie Rosier: hardwood floors, painted wood, credenza, concrete tiles, pottery and tools are perfect for a beautiful interior, chic and attractive ornaments.

Client : Private house

Contractor : LJ Batiment

Location : 170, rue du chateau, 75014 Paris

M2 : 54m2 (deux etages)

Opening date : January 2014